

GIST 학생들, 카카오 생성형 AI 해커톤서 2·3·4위 수상

- GIST 학생 2개 팀 2·3위 수상 ... GIST·DGIST 연합팀도 4위
- AI 에이전트 활용해 아이디어 기획부터 시제품 구현까지 수행



▲ 9월 29일(화)에 열린 '카카오 AI 돛 랄프톤'에서 2위를 수상한 'First Place' 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GIST 학생들이 지난 9월 29일(화) 부산 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생성형 인공지능(AI) 해커톤 '카카오 AI 돛 랄프톤'에서 2·3·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돛 랄프톤'은 '카카오 AI 돛 Summit 26'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로, GIST·한국과학기술원(KA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들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AI 인재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하루 동안 실제 작동하는 시제품으로 구현하는 과제에 도전했다.

참가팀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두 차례의 온라인 사전 교육과 팀별 심층 멘토링이 진행됐으며, AI 기반 코딩 도구인 '코덱스(Codex)' 구독도 지원됐다.

특히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의 AI 전환(AX)·개발 담당자를 비롯해 AI 분야 전문가, 스타트업 창업가 등 현업 전문가 12명이 멘토와 코치로 참여했다. 또한 카카오벤처스·카카오인베스트먼트·블루포인트파트너스·낭만투자파트너스 등 벤처투자기관 관계자들은 심사를 맡았다.

이번 대회에서 GIST 학생들이 참여한 3개 팀이 나란히 2~4위를 차지했다. GIST 학생들로 구성된 2개 팀이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GIST·DGIST 연합팀이 4위를 기록했다.

2위 'First Place' 팀에는 예스타이(Yestay·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4학년), 김민정(환경·에너지공학과 4학년), 바이아스탄 스탈베코프(Baiastan Stalbekov·AI학과 3학년), 누르술탄 잔자코프(Nursultan Janzakov·AI학과 3학년) 학생이 참여했다.

3위 'Gistathon' 팀은 조용빈(도전탐색과정 1학년), 김정현(AI학과 석사과정) 학생으로 구성됐다.



▲ '카카오 AI 돛 랄프톤'에서 3위를 수상한 'Gistathon' 팀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4위 '가연이와 아이들' 팀은 GIST의 이가연(생명과학과 3학년), 이현서·황제연(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3학년) 학생과 DGIST의 채은우(DGIST 기초학부 1학년) 학생이 함께했다.



▲ '카카오 AI 돛 랄프톤'에서 4위를 수상한 GIST·DGIST 연합팀 '가연이와 아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위 수상팀 'First Place'의 김민정 학생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카카오 현업 개발자와 벤처투자기관 멘토들의 피드백을 받고 첨단 AI 에이전트 도구를 활용해 실제 작동하는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어 뜻깊었다"며 "다른 과학기술원 학생들과 교류하며 AI 기술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관 GIST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대회에서 GIST 학생들이 2~4위를 차지하며 실무형 AI 제품 개발 역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생성형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창의적인 연구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